

천정배 “유권자 평가 공천 반영 검토”

국민의당 광주 출마예정자 간담회

신인 가산점·토론회 기회 제공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 공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14일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과 관련 “유권자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표의 이날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의당 국회의원 광주 지역 출마예정자 간담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경쟁에 앞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 (현역의원 평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다만 공천과 경선을 하다 보면 인지도가 높거나 조직력이 좋은 기성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점을 참작해 신인에게 가점을 준다든가 실력을 알릴 수 있는 토론회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지역과 다른 지역의 공천 규칙을 달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공천의 대원칙은 ‘한국정치와 호남정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것’이다”며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 사회적



“정치혁신, 광주가 앞장서겠습니다” 14일 광주시 일곡동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4·13 총선 예비후보자 워크숍에 참석한 장병완·임내현·권은희 의원 등이 ‘한국정치혁신 광주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결기와 도덕성, 그리고 정치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현장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업무 추진 능력이 있는가 ▲ 호남정치를 살리는 방안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등 4가지 뉴 DJ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치와 호남정치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겠다”면서 “이는 뉴DJ 호남의 기준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제도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현역의원 못지않게 공정한 룰로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 ‘하자가 있거나 공정치 못하게 자칫하거나 공천심사를 진행하지 마라’는 요구 등을 내놓았다.

현역의원을 제외한 채 광주 총선 당내 출마예정자들과만 간담회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역의원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어 현역이 아닌 출마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예비후보 간담

회 이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광주지역 현역 의원, 총선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당헌·당규·기본정책을 설명한 후 총선 혁신 토론회를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박준선·김동철 의원은 불참했고, 참석한 장병완·임내현·권은희 의원도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뒀다.

혁신토론회와 테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의원 및 예비후보자 공동합의문’ 형태로 15일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한시가 급한데... 선거구는 오리무중

확정전 당내 경선 무효·재외국민 투표 차질 우려

2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도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확정 기준 마련은 14일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여야는 선거구 공백상태 속에서도 일단 당내 경선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자칫 사실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커 시급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유권해석 의뢰에 “지역선거구가 소멸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 경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선거구 확정 없이 진행된 당내경선은 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선 불복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선거구 부재인 현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진행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여야가 도입하려던 안심번호 활용 역시 선거구 확정 없이는 원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 역시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재외국민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3일에도 선거구 확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투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선거구 확정 협상에서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주재하고, 이르면 19일 늦어도 23일에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千·安, 정동영에 합류 요청

권노갑·정대철 전 고문 회동... 정, 다음 주 거취 표명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동교동계 권노갑 전 상임고문과 정대철 전 고문이 지난 13일 전북 순창을 방문, 정동영 전 의원과 전격 회동해 국민의당 합류를 요청했다. 정 전 의원은 당초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국민의당 행(行) 가능성도 열어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권 전 고문과 정 전 고문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정 전 의원의 순창 집으로 찾아가 2시간 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권 전 고문은 이 자리에서 “60년 정통 야당의 적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후보였던 정 전 의원도 그 한 축으로서 함께 하자. 무소속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며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우리도 입당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신중하

게 행동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전주 덕진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로, 당초 설 연휴 직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으로 인해 일정을 연기한 상태여서 다음 주 거취에 관한 최종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도 정 전 의원의 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4일 노원구 수락산성당 미사 뒤 기자회견과 만나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 “정치의 판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실 분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합류를 요청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지난 13일 “(무소속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우리당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재정적자 95조원... 박정부, 나라살림 거덜냈다”

박해자 더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자(서구 갑) 의원은 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재정적자가 95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무현 정부 5년 간 재정적자 규모가 10조9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선 지난 8년간 194조원을 넘었다”며 “이는 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지표상의 성장



률에 집착해 세입확충 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빚내 경기부양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에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안세 정상화 등 재정적자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채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전당 주변 게스트하우스 지어 일자리 창출”

이병훈 광주 동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관광객들을 수용할 게스트하우스를 조성, 노인복지 및 일자리창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은 19.6%로, 이는 광주 전체 평균인 11.1%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고령 인구의 노후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 희망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소유한 노후 주택을 개보수할 동구노인회방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5대 민생 공약 발표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

국민의당 정진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4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5대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간 서민중세·부자갑세 등 편향된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민생은 파탄났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공정한 성장과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대 민생공약 방안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 근로빈곤층 소득 증대 지원 ▲ 재벌의 편법상속 및 증여 등 갑(甲)질 규제 강화 ▲ 대학 등록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첨단2지구 대중교통 등 주거환경 개선 시급”

이남재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남재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4일 “첨단2지구 인구가 지난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및 치안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시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대비 버스노선이 5곳에 불과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이 치안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관계당면서 “도시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